

음악으로 문화적 공감대 형성

문체부, 2019년 한국-덴마크 상호 문화의 해 지정
오늘 덴마크서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 공연 개막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2019년을 '한국-덴마크 상호 문화의 해(2019 Korea-Denmark Cultural Year)'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2018년 2월, 한국-덴마크 수교 60주년(1959. 3. 11. 외교관계 수립)을 기념하기 위해 덴마크 측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오늘 덴마크 코펜하겐 데이니스 라디오(Danish Radio) 콘서트홀에서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다양한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도종환 장관은 이번 개막 공연에 마리 한센(Maria Hassén) 덴마크 문화부 차관, 토마스 리만(Thomas Lehmann) 주한덴마크대사와 함께 참석하여 양국 간 우의를 다질 예정이다.

이번 개막 행사에는 (재)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와 주덴마크왕국대한국대사관이 함께한다. 특히 개막 공연은 덴마크 코펜하겐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되는 우리나라 오케스트라의 연주회로서 임준희의 교향시 '한강(한국)'과 칼 닐센의 '플루트 협주곡(덴마크)' 등 양

국 작곡가들의 작품을 연주하며 양국 간 우의를 다질 계획이다.

상호 문화의 해를 기념하기 위해 유은석 이화여대 교수, 니나 리 스톰(Nina Lee Storm, 한국계 덴마크인) 작가와 함께 '공동 기념로그'를 제작하고, 상대국과 함께하는 주요행사를 홍보하기 위해 '후견인(Patron)'을 지정했다.

덴마크 측 후견인으로는 '메리 왕세자비(Crown Princess Mary)', 우리 측 후견인으로는 유럽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예술인 '김수진 국립발레단 예술감독'이 지정됐다. 후견인들은 2019년 한 해 동안 양국 주요 문화교류 행사에 참석하고 이를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 한국 관광 설명회(2월, 코펜하겐), ▲ 국립무용단 '북향' 공연(4월, 코펜하겐) 등 교류행사를, 덴마크 문화부도 ▲ 안테르센 전시회 및 북유럽 미술전(5월, 서울), ▲ 덴마크 왕립 오케스트라 공연(12월 예정, 서울) 등 다양한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도종환 장관은 "한국과 덴마크가 이번 상호



문화의 해를 통해 서로 깊은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나아가 양국 간 문화교류가 더욱 확대되고 깊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저작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바로' 잡는다는 의미와, 때와 상황을 가리지 않고 '바로' 저작권 침해 상황에 대처한다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진 네이밍

한국저작권보호원이 개발한 저작권 보호 캐릭터 '바로'.

저작권 수호하는 정의감 넘치는 히어로

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 보호 캐릭터 '바로' 개발

"저작권을 어렵게 생각하는 국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상징성 있는 캐릭터를 제작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윤태용)은 저작권 보호 캐릭터 '바로'를 개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바로'는 저작권이 올바르게 보호되도록 곧바로 조치하는 수호자라는 뜻으로 순우리말이다. 보호원은 저작권을 수호하는 정의감 넘치고 똑똑한, 친구 같은 모습의 히어로로 형상화했다고 설명했다. 바로가 들고 있는 방패에 새겨진 알파벳 C는 '저작권(Copyright)'을 의미한다.

캐릭터의 컬러는 보호원의 로고와 같은 파란색으로 신뢰를 상징한다.

윤태용 원장은 "급속한 환경 변화 속에서도 반드시 저작권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역동적으로 표현했다"며 '바로'를 활용해 이모티콘과 각종 홍보물을 제작하고, 홈페이지·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확산시킴으로써 콘텐츠 이용자의 저작권 존중 의식을 함양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순창군립도서관, 인문학 부흥 중심지로 거듭... 겨울방학에도 다양한 활동 펼쳐

순창군립도서관이 지역주민들의 인문학 부흥 중심지로 거듭나면서 올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2014년에 건립된 군립도서관은 지난 한 해 동안 전시회, 공연, 특강 등 50개 과정에 14,586명이 참여했으며, 연인원 61,072명이 찾는 지역내 최고의 문화공간으로 자리잡았다.

특히 그중에서도 6개월 동안 운영했던 인문독서아카데미와 지역내 작가들이 재능기부를 펼쳐진 길위의 인문학 등은 지역민의 문화욕구 충족에 크게 기여했다.

이에 군립도서관이 올해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한 가운데 겨울방학 특집프로그램인 '생각을 키우는 슬로리딩'으로 또 한 번 어린이와 학부모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계획이다.

'생각을 키우는 슬로리딩' 프로그램은 노경실 작가의 '우리 고전 다시 읽기'와 김주연 작가의 체험하는 '그림 읽기'로 진행되며 오는 19일부터 매주 토요일 4회에 걸쳐 운영된다. 어린이·청소년책 작가이며 번역가인 노경실 작가는 자녀교육서와 에세이를 집필하며 30년 넘게 20여권의 책을 펴내며 창작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또한 도서관과 공공기관에서도 어린이와 부모를 대상으로 1000여 회 강연을 펼치는 등 강연가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천천히 그리고 깊이, 책을 읽는 기쁨을 선사할 예정이어서 군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순창군립도서관이 인문학 부흥 중심지로 거듭나면서 올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노 작가는 오는 19일 오전 10시에 '책아, 책아 미안해'라는 주제로 첫 만남을 시작해, '읽은 만큼 커지는 마음과 지혜'라는 주제로 26일 두 번째 만남을 가질 예정이다.

이 강좌는 우리 고전 '별주부전(토끼전)'의 내용을 읽고, 아이들이 다시 그리기를 통해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프로그램이다. 다음달 2일부터는 김주연 화가의 체험하는 그림읽기 강좌가 시작된다.

김주연 화가는 지난해 순창으로 귀촌한 수채화가로, 개인전 36회 및 국제교류전과 초대

작가전 등에 다수 참여했다. 또 대한민국 회화 대상전 대상과 세계여성 미술대전 최우수 등 수상 이력도 돋보인다.

다음달 2일에 시작하는 첫 번째 강의는 '아이와 함께 옛그림 읽기', 두 번째 강의는 '내 마음 속 그림 그리기'로 진행되며, 강의 기간 동안 김 화가의 다양한 작품들도 전시된다.

'생각을 키우는 슬로리딩' 프로그램 문의는 순창군립도서관 전화(650-5678)나 홈페이지(lib.sunchang.go.kr)를 통해 가능하다. /순창=이양원 기자

최신 스포츠 분석기술 접목한 참고자료 나왔다

'2018 K리그 테크니컬 리포트' 발간

프로축구연맹이 2018시즌 경기 데이터와 지표를 분석한 시즌 총괄보고서 '2018 K리그 테크니컬 리포트'를 발간했다.

2018시즌 K리그1과 K리그2 총 408경기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전북 조기 우승의 힘', '경남 돌풍의 이유' 등을 다채롭게 해석했다.

'포메이션' 장에서는 지난해 각 팀이 사용한 포메이션의 종류와 승률을 통해 각 팀의 보유 자원 활용법과 팀 철학을 살렸다. /뉴시스

또 주도권 싸움이라는 축구 흐름을 반영해 단순한 볼 소유권이 아닌 '시퀀스', '포지션' 같은 개념을 도입해 K리그 팀의 주도권 싸움과 공격 작업을 조금 더 직관적으로 해석했다. '2018 K리그 테크니컬 리포트'는 구단 및 관계사에 배포되며, 팬들을 위해 K리그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연맹은 "최신 스포츠 분석기술을 접목,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 현장의 지도자에게는 물론 구단과 연맹의 정책 수립에도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캠핑하기 딱 좋은 곳...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